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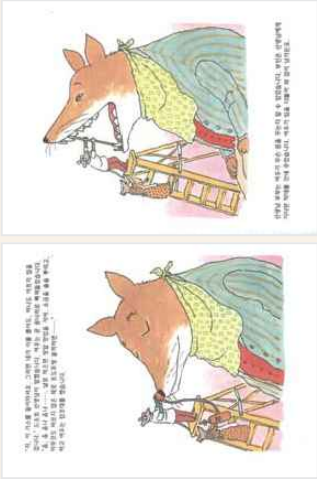
다. 그러나 윌리엄 스타이그는 오직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과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에
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생쥐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작품은 이 두 권과 지난 호에 소개했던 「아모
스와 보리스」를 합하여 세 권입니다.

이 작품들의 발표 시기를 보면 「아모스와 보리스」가 가장 먼저, 1971년에 출판되었고 그로부터 11
년 후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이, 그리고 다시 10년 후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이 출판되
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와 보리스」가 물에 사는 생쥐 아모스와 물에 사는 고래 보리스가 바다에
서 만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나머지 두 작품은 결혼한 드소토 선생님이 부인
과 함께 치과 의사로서 겪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아주 이를 잘 고치는 의사이며 그의 부인은 그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는 작은 동물들뿐 아니라 돼지나 소와 같이 드소토 선생님보다 훨씬 크
기 큰 동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소토 선생이 도르레를 타고 환자 임까지 올라가면 부
인이 아래에서 도르레 끈을 잡아당겨서 드소토 선생이 공중에 매달려 있게 합니다. 그 치과에서는
일의 성격상 육식 동물들은 치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날 치과 건물 밑에서
어우가 치통을 호소하자 드소토 선생 부부는 그를 치료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육식 본능이 살
아난 어우는 치료가 끝나면 생쥐를 잡아먹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속셈을 눈치챈 드소토 부
부는 그 다음 날 치료를 마친 후 어우의 이빨에 점착제를 붙여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 이야기는 “백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최고의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
이 어느 날 아프리카의 무담보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의 내용은 코끼
리 무담보가 자신을 치료해 주면 큰 사례를 하겠
니 당장 와달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드소토 선생님과 부인 드보라는 이 제의
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곧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과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

윌리엄 스타이글 저
유미경 역
시공주니어 출판

6 원문재·성곡관대 이동형소년학과 교수

독서의 즐거움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문학 용어는 ‘상호텍스트성’입니다. ‘상호텍스트
트성’이란 단어 그대로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상호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문해 경험은 다른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토대가 되며 그것은 또 다른 텍스트
를 조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텍스트성 이론은 독서의 즐거움과 관련되
어 있으며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책을 찾고 읽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책을 멀리하게 되는
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독자적인 그림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 그림책 작가들은 같은 이름의 인물들 그림책 제목
에 넣거나 같은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그림책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곤 하니

바다여행을 즐기면서 배의 갑판에서 날치랑 물을 뿜어내는 고래를 보기도 합니다. 무담보 코끼리를 만나 치료를 시작한 드소토 부부가 밤이 되어 무담보 부인의 바늘꽃에서 잠을 자는 동안 홍 키텍크라는 붉은색 원숭이가 드소토 선생님을 납치해 밀림속의 새장 안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 전에 많은 이들 앞에서 무담보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 복수하려고 버르고 있던 참이었습니 다. 드소토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새장에서 탈출하여 무담보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치료비를 두둑이 받은 드소토 부부는 탈출하다 다친 드소토 선생님의 다리가 다 나으면 멋진 세 상을 좀 더 보러 다니기로 합니다.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과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이 두 작품에서 드소토 선생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우를 치료해주고 아프리카가 먼 곳까지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의사이며 그의 아내 드보라는 드소토 선생님의 훌륭한 조수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드보라가 남편 이상으로 모험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여우의 치료를 망설이는 드소토 선생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여행에 도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멋진 세상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은 독자는 '드소토 선생님'과 '아모스'가 웬지 별개의 인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생쥐라는 공통점 외에도 세 작품 간의 암시적인 상호 연관성 때문입니다. 세 작품을 다 읽은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혹시 아모스가 성장하여 치과의사가 된 것은 아닐까? 왜 아모스가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 그는 보리스와의 우정을 통해 성숙해졌으며 그림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첫 페이지에서 드소토 선생님은 전보를 받고, 책장을 넘겨 펼친 면의 왼쪽 페이지에는 드소토 선생님의 답장 편지가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서 드소토 부부는 배

의 갑판에 앉아 지나가는 고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 분배는 드소토 부부가 진보를 받고 곧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빨리 아프리카 여행길에 올랐을까요, 혹시 오래전 자신이 완성하지 못했던 바다 여행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영원히 잊지 못할 친구 보리스와의 추억 때문은 아닐까? 혹시 두 부부가 바다 여행 중에 바라보았던 고래는 보리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모스와 드소토 선생님. 그리고 무담보 부부와와 관계도 추측해보게 됩니다. 혹시 그 무담보 부부가 오래전에 아모스의 청으로 보리스를 구해준 그 두 코끼리가 아닐까요? 드소토 선생 부부가 전보를 받고 곧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이유도 많은 액수의 치료비 때문이 아니라 코끼리에 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듯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었던 독자는 이 작품을 읽지 못한 독자와는 다르게 드소토 부부의 출발 이유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지 못한 독자들은 드소토 선생이 두둑한 치료비 때문에 아프리카로 떠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책의 독자들은 드소토 선생님의 여행에 내포된 다른 이유와 더 풍부한 의미를 생각해볼게 됩니다.

이러한 책 읽기 행위는 문학작품의 의미 형성에서 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유아들도 그림책 간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유아들이 발견하는 텍스트 간의 관계는 그들의 경험과 언어의 제한 때문에 성인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참고로 말씀드리다면 성인들조차도 그림책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하고 그림책을 즐기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아가 그림책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성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곁에서 책 읽기의 전략을 가르친다면 그 즐거움은 훨씬 더 풍부해지겠지요.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그림책이 담긴 텍스트가 아니라 열린 텍스트임을 깨닫게 되다면 우리는 어린이와 함께 이런 저런 상상을 하면 즐거워할 수 있겠지요. 다시 보리스를 만난 드소토 선생님은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무담보가 준 치료비로 세계 여행을 떠난 드소토 부부는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드소토 선생님을 납치해서 무담보 코끼리를 끌려주려던 붉은색 원숭이 홍 키텍크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